

# 일상 속 편안한 교감 '함께하다'

코로나 19 여파로 문화예술 시장이 얼어붙었다. 미술 분야 역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예외인 작가가 있다. 서양화가 문형태(45)작가. 조선대를 졸업한 뒤 줄곧 서울에서 활동해온 문 작가는 컬렉터와 일반 관람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문형태 작가 개인전이 서울 청담동 갤러리 MUE에서 오는 8월2일까지 열린다. 지난 6월 3일 개막한 전시에는 최근작 40여점이 나왔고 작품 대부분이 주인을 찾아갔다.

'함께하다'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초대전은 지금까지 국내외 갤러리와 아트페어에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며 관심을 모은 문 작가가 갤러리 MUE의 첫 콜라보다. 문 작가의 작품은 친숙한 소재로, 편안하게 다가온다. 마치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동화처럼 느껴지는 작품들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일상이 주는 행복과 일상을 느껴볼 수 있는

해남 출신 서양화가 문형태 개인전 8월 2일까지 청담동 갤러리 MUE 조선대 순수미술 전공 40여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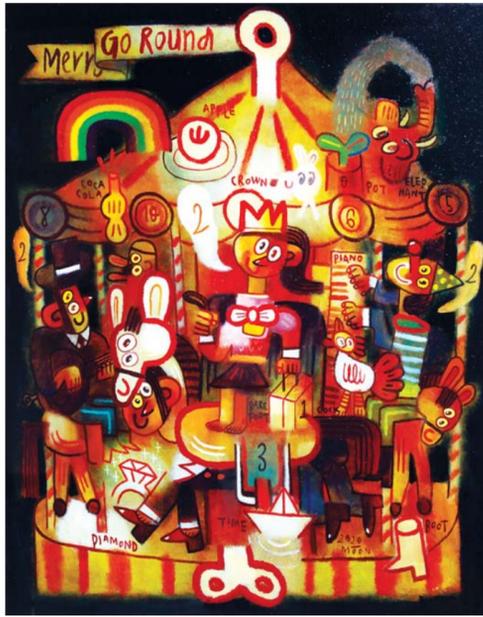
작품들이다. 그의 작품은 팬층이 두껍다. 이번 초대전 소식을 알려지자마자 미리 작품 목록을 문의하는 메일이 많이 왔다. 또 전시 첫날부터 꽤 많은 작품이 팔렸나갔고 상대적으로 구입이 쉬운 소품은 일찌감치 완판됐다.

문 작가를 초청한 이지영 관장은 "작품 주제가 가족 등 '관계'를 다루고 있어 쉽게 교감이 되는 게 장점"이라며 "무엇보다 단순히 유희나 아크릴 물감 뿐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원료들이 작품에 깊이감을 부여하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회전목마(Merrygoround)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유쾌한 표정,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가족의 모습 등 화사한 색채 속에 거친 드로잉과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는 천진난만한 인물들의 모습은 흥미롭다. 일상에 풍성한 상상의 내러티브가 더해지고 단순하게 묘사된 익살맞은 인물들이 등장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삶의 소소한 재미를 보여주며 관람객들을 미소짓게 한다.

뽕죽구두와 정장, 동물과 자연, 자동차, 화분, 소녀와 어린이 등 저마다 이야기를 지닌 대상이 어우러진 작품은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감대를 형성해간다. "관람객들이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림을 보는 각자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문 작가의 작품에서 도드라지는 건 강렬하고 독특한 색감과 질감이다. 황토를 섞은 물을 캔버스에 펴 바른 후 흙물이 든 화폭에 유화물감을 겹겹이 올려 색을 칠한 그의 작품은 흙이 지닌 노란톤과 다채로운 색이 만나 마치 바랜듯



'Merrygoround'

한 특유의 색감을 만들어내고 작품 속에 따뜻한 기운을 전한다. 인간 군상을 단순화한 형태로 묘사하면서도 붉고 푸른색을 적절히 섞어 강렬함을 표현하는 게 특징이다.

해남 출신인 문 작가는 조선대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2002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0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그림 뿐 아니라 영화·뮤직비디오 소품 제작 등 복합 장르에서도 활동중이며 2011년에는 LA 아트쇼 'Emerging artist prize'를 수상했다.

광주 출신인 이지영 관장은 "기회가 닿으면 문 작가의 작품을 광주에서도 소개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집, 빨래'

# 서암전통문화대상에 한국무용가 공진희 씨 화천그룹 서암문화재단 선정, 상금 3000만원

제10회 서암전통문화대상에 한국 무용가 공진희 씨가 선정됐다. 금속공작기계 전문기업인 화천그룹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은 19일 오후 수상자로 전통무용 부문의 공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공씨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지며 향후 활동에 대한 재단의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진다.

재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인 채삼목 선생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심사를 진행해 왔다.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국악, 국악, 한국무용 등 전통문화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상으로 지금까지 한국화가 박문중·박종석 작가를 비롯해 거문고 연주자 유소희, 윤진철·주소연 명창 등이 수상했다.

조선대 체육대학 무용과 석사 학위를 마치고 사범대학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졸업한 공씨는 지난해 열린 제21회 영암전국국악대전에서 '이매방류 승무'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및 제27호 승무 전수자로 활동중이다.

광주시립국극단 무용부 상임단원을 거쳐 현재 조선대 체육학과 공연예술무용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공 씨는 대표를 맡고 있는 광주뿌리한국무용단을 이끌고 전국무용계에 참



가 두 차례 은상을 수상했다. 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 공연에 조안무로 참여했으며 해외 30여개국에서 50여회의 초청 공연과 국제민속축제 공연활동을 통해 한국 무용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심사위원회는 "공씨가 광주전남 전통무용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오며 전통춤과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현재까지의 경험과 이론 및 실기를 더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화천기공(주)에서 간소하게 진행된다.

한편 서암문화재단은 고(故) 권승관 명예회장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생전의 깊은 관심을 계승하고 전승발전시켜 예방에 걸맞는 전통문화예술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화천그룹이 지난 2010년 설립했다. 재단은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예술 전공 고등학생 장학금지원 등 전통문화인재양성,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전통문화예술 연구를 펼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이매방류 승무'로 영암전국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공진희씨.

# 진화하는 공연...나주 첫 드라이브 인 콘서트

베란다 콘서트 진행 '각광'

"공연을 자동차 안에서 즐기며 코로나 블루 이겨내자."

나주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인 콘서트가 열렸다. 광주 청년 예술가들로 구성된 '베란다 콘서트' 팀이 지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즐기는 '찾아가는 드라이브 콘서트'를 기획, 코로나 19로 지친 가족, 친구, 연인들을 초대해 콘서트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나주시에 있는 ENTER-K 사무실 주차장에는 SNS 사전예약한 10대의 차량이 모였다.

MC 유장석의 진행으로 시작한 공연은 신앤

싱어즈의 팝페라, 더블루이어드의 감미로운 색소폰과 흥겨운 노래, 여성댄스팀 스타리의 댄스 등 다양한 무대로 이어졌다. 이들의 무대는 공연장 분위기를 달궜고, DJ ONE의 EDM에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관람객은 차량 안에서 함께 댄스 즐겼다.

공연은 SNS로도 중계돼 집에서도 현장 분위기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베란다 콘서트 SNS에는 "잘왔다", "힐링된다"는 현장관람객의 댓글과 "집에서 같이 흔들고 있다"는 온라인관람객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날 공연을 위해 ENTER-K, 방역맨, 오션텍기프트, 미디어공방 찰라 등이 공연 장소와, 공연장 방역서비스, 현장 중계 등을 무료로 제



지난 18일 나주시ENTER-K에서 열린 '찾아가는 드라이브 콘서트'

공했으며, 베란다콘서트팀은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블루를 이겨 낼 또 다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

# "오월창작가요제" 8월 8일 유튜브서 만나요

올해 오월창작가요제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사)오월음악은 제10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무대를 오는 8월 8일 오월창작가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인다.

2차 예선 심사는 지난 11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영상 심사로 진행됐으며, 1차 음원 심사를 통과한 20팀의 영상을 심사위원 5명이 함께 보고 심사해 총 10팀을 선발했다.

이번 오월창작가요제 본선에는 김강주 '봄 너로구나', 뮤즈그레인 '일하고 싶다'(Feat.코로나19)', 부즈 '꽃 피는 아몬드 나무(부제-고희에게 부치는 편지)', 소호 '매일매일이 축제

와 혁명의 반복이러네', 쓰다선 '배 타러 가자', 에빈&수영 '꽃마리', 이형주 '무궁화기차', 이호 '고래의 말', 죄수사 '죄수사', 하비오 '보라하고' 등이 진출한다.

본선 10팀 심사를 통해 대상 1000만원(1팀), 금상 500만원(1팀), 은상 300만원(1팀), 동상 200만원(1팀), 장려상 100만원(6팀) 등을 선정하며, 총 26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본선 무대에는 전년도 가요제 대상팀 보명이 올라 축하공연을 펼치며, 지역예술인 합동 공연 '가수를 꿈꾸다 오월을 만나다'도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